목어

인식전환과 해탈

만추(晩秋)! 겨울이 시작되는 쇠락의 계절이다. 무성했던 욕망이 서서히 그 껍질을 벗어 던져야만 하는 나목(裸木)의 계절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그동안 충만했던 기운이 희망이요, 복(福)이요, 덕(德)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훨훨 벗어던질 때 희망, 복, 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부처님은 해탈(解脫)이라고 했다.

인간의 문화는 정신문화와 과학기술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과 정신문화의 병행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과 정신문화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삶의 행복감, 사회정의, 안정감이 이룩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기 과학기술 위주의 사회가 정신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할 수 있도록 값진 정진을 해야 한다.

역사의식이 결여되고 문화정신이 결핍되면 미래지향적 사고와 사유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상황을 살펴보면 망각되고 부정된 역사의식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적 갈등구조가 그대로 사회에 투영되어 어떤 것이 이질적 요소이고, 본질적으로 지향해야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해 불신만 양산시키고 있다.

지구촌은 새롭고 도전적인 급변의 질서에 대처해 나갈 지혜와 용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동서남북의 그물짜기식 변화의 와중에서 민족정신의 근원과 본질이 망각되지 않으면서 세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급의 많은 보살들이 출현하여 사회질서 재편에 그 힘을 모아야 한다.

누군가가 처음 시도했더라도 전체를 이끌고 가는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목의 깨벗은 혹독한 겨울이 오히려 새봄의 새 잎, 꽃, 열매를 이끄는 해탈의 길일 것이다. 바로 지금, 화합과 해탈을 위한 사회전체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조용길(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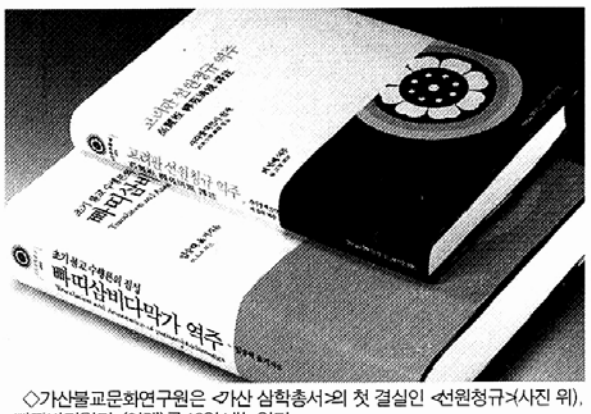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가산불교연구원 '삼학총서' 발간

첫 결실 '선원 청규' '빠띠비다막가' 2권

"10년간 20권 목표" 23일 창간기념 법회

불교대사림 권4 나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가산 삼학총서>의 첫 결실인 <선원청규>(사진 위), <빠띠비다막가>(아래)를 13일 내놓았다.

팔만사천의 부처님 말씀 가운데 수행의 요체가 되는 고전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온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가산삼학총서〉의 첫 결실로 대중 규범서인 〈선원청규〉와 초기 불교 수행론을 집성한 〈빠띠비다막가〉 등 2권을 13일 내놓았다.

연구원이 1992년부터 기획해 온 〈가산삼학총서〉 편찬 작업은 수행자라면 반드시 닦아야 할 계(戒) 정(定) 혜(慧) 삼학 중 수행의 전범으로 삼을 만한 고전 20권을 뽑아 우리말로 번역하고 주석을 다는 일이다.

앞으로 10년간 진행될 이 작업은 연구자 공모를 거쳐 한문본, 티베트본, 산스크리트 본 수행 논서 9권에 대한 번역 작업이 진행돼 왔으며 이번에 첫 2권이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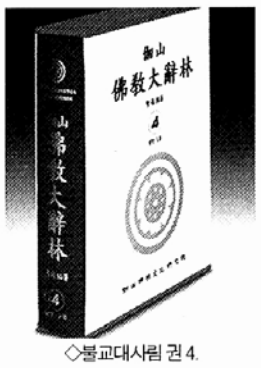
〈삼학총서〉는 산스크리트어나 한문 원전을 우리말화 했다는 데 우선 의미가 있다. 기획실장 현원 스님은 "17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 승가 및 교단 대중이 소의(所衣)하고 읽어낼 삼학의 고전, 즉 수행경론서 및 율장이 없음을 주목하게 됐다"며 "〈삼학총서〉는 인류 유산 가운데 최상으 가치를 지닌 수행의 전통과 방법론을 대중화하는 작업"이라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런 취지는 처음으로 내놓은 〈선원청규〉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선종의 승풍을 진작시킨 대중 규범서인 〈선원청규〉는 수행자들의 이상적 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의 실체를 보여준다. 저본으로 삼은 〈고려판 중첨족본 선원청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청규로, 송나라 때 종색 스님이 간행(1103년)한 것을 고려 고종 41년(1254)에 복각한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돼 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규란 말이 선종의 선원에서 수도하는 승려들이 서로의 불도 완성을 위해 지켜야할 규범이라는 뜻인 만큼, 〈선원청규〉에는 선원 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소한 것까지 세세히 나와 있다.

계를 받고 지키는 방법, 안거 결제와 해제에 관한 사항, 각 소임이 해야 할 일 등 수행과 소임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차를 마시는 방법에서부터 총림생활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분별하는 방법, 심지어 객 노릇하는 방법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선원 생활의 '매뉴얼' 구실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능히 남의 공덕을 아는가 마는가, 화합하여 다투지 아니 하는가 마는가, 선언(善言) 듣기를 즐거워 하는가 마는가 등 부록에 나와 있는 수행에 대한 물음 120가지는 수행자라면 누구나 궁금하게 여기는 것을 다뤄 실참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



◇불교대사림 권 4.

한국불교사에서 최초의 '한국불교대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가산불교대사림〉(전 15권 예정) 4권도 이번에 함께 나왔다. 연구원은 또 한국불교 지성사를 정리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1600년 한국 불교사를 밝혀온 불교 지성 33인을 골 선정하고 한 사람씩 연구 발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원은 〈가산삼학총서〉 창간과 〈가산불교대사림〉 4권 출간을 기념하는 법회를 23일 오후 6시 30분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연다. 이 모든 작업을 이끌고 있는 원장 지관 스님이 한국 불교학을 정리하는 데 평생을 바친 공로로 지난 달 은관문화훈장을 서훈받은 것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경직성 비용 줄이고 사업비 늘려

조계종 내년예산 154억 8천만원 확정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12일 2002년도 조계종 예산 154억 8천여만원을 확정했다.

올해 조계종 예산의 특징은 긴축예산의 기조 속에 경직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사업예산을 증액 했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경직성 예산인 기관운영비(9억4천여만원)는 전년에 비해 28% 감소했으며, 사업비(49억4천여만원)는 12.3% 늘어났다.

교육 · 포교에 역점 편성

또 교육 · 포교에 역점을 두는 종단의 지표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했다. 총무원이 1.1% 증가한 63억8천여만원으로 인건비 증가를 제하면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반면, 포교원은 20억 2천여만원으로 7.2% 증가하고, 교육원은 41억1천여만원으로 수치상 3.1% 감소했으나 승가대 지원비가 줄어들어 사업예산은 증가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올해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6억원에 템플스테이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고, 불교역사문화 보존을 위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예산 5억원이 특별 편성됐다. 중앙승가대 이전에 따른 건축비도 적립 및 이월금과 합해 미지급금 100억원중 50억원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예산을 기능별로 나누면 사업비 49억5천여만원(32%), 보조금 43억3천여만원(28%), 특별회계전출금 25억5천여만원(16.5%), 인건비 26억5천여만원(17.1%), 기관운영비 9억9천여만원(6.4%) 등이다.

사업별 예산은 법계법 시행, 종무행정 강좌개설, 승적정비 등의 예산에 30억여원, 중앙종무프로그램 개설, 종단홈페이지 활성화등에 5억2천여만원, 사찰예결산 관리전산화, 미등록사찰 재산등기 등에 3억7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사찰문화재 조사, 성보재산 전산화에 4억3천여만원, 사회복지재단 보조금과 남북불교교류등의 사업에 8억1천여만원, 훼불방지 및 단속강화에 1억1천여만원, 교육원 40억8천여만원, 포교원 20억2천여만원, 중앙종회 4억2천여만원을 책정했다.

본 · 말사 분담금 30% 인상

한편, 조계종은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1억6천여만원이 감소, 2천여 본 · 말사가 부담하는 중앙분담금을 각 교구별로 30%(7억1천여만원) 인상했다. 조계종 예산에서 항목별 분담금 비중은 본 · 말사의 중앙분담금이 20%, 직할분담금 3.5%, 조계사 보문사 선본사가 부담하는 직영분담금 26.4%, 도선사 봉은사 연주암 봉정암 보리암 낙산사 석굴암 내장사가 부담하는 특별분담금 16.5%, 관람료사찰 분담금 18.4%, 미수분담금 6.5%, 기타수입 8.6%등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스님과 신도 자발참여 교육의 질 향상 관건"

신도교육 실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신도교육 실시의 취지는.

"신도교육은 기본-전문-지도자-재교육 네 단계로 구성돼 있다. 불자들이 이 체계에 따라 불교를 제대로 배우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특히 기본교육은 불교에 입문한 불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수행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전법도 할 수 있다. 전문교육이나 지도자교육, 재교육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불교를 계속 공부하고, 또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불자들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찰마다 천차만별인 신도교육을 통일해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겠다는 목적도 있다. 어떤 절에 가든 똑같은 교재로 배울 수 있게 돼 초심자들에게는 매우 편리할 것이다."

◆6월부터 8월까지 35개 사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했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시범실시를 했던 사찰이나 신도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특히 신도들은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어떤 사찰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함께 접목시키면서 효과를 배가시키기도 했다.

불자라면 누구나 일정 교육 받아야

하지만 문제점도 드러났다. 일부 사찰에서는 스님이나 신도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례대로 해오던 교육방식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겠다는 인식이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신도교육의 성패는 스님들의 참여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한 문제지만, 신도들을 어떻게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느냐는 스님들의 몫이다. 이달말부터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그 지방 스님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충분히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면 많은 스님들이 신도교육의 참뜻을 이해하고 따라줄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신도교육이 의무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스님과 신도들의 자발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교발전은 요원해진다. 스님과 신도들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찰들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점차적으로 범위를 늘려나갈 생각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은 신도들이 많은 사찰일수록 신행과 포교 등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訃 告

梵魚門徒 東林寺 祖室 寒山堂 華嚴大禪師 十一月 十日(陰 九月二十五日) 午後 四時 三十分
金海 神魚山 東林寺 拈 華室 入寂以訃告

● 永訣日時 : 佛紀 2545年 11月 14日 ● 永訣式場 : 金海 神魚山 東林寺 ● 茶毘場 : 金海 神魚山 東林寺 茶毘場

• 證 明 혜암, 서옹, 서암, 월하, 석주
• 顧 問 고산, 관응, 금산, 능가, 덕명, 도견, 도천, 도현, 법룡, 법전, 벽암, 보성, 성수, 원담, 월인, 응담, 지종, 지관, 천운, 청화
• 護 喪 지백
• 指導委員
계전, 녹원, 담연, 대성, 대정, 도근, 도륜, 도우, 도원, 무근, 무진장, 반월, 백운, 법룡, 법륜, 법정, 봉주, 선래, 선용, 설정, 성오, 성현, 송담, 수월, 숭산, 양국, 양익, 영공, 영환, 오본, 원경, 월서, 월용, 월운, 월주, 일미, 일출, 정견, 정관, 정대, 정영, 정일, 종산, 종환, 지원, 지하, 지혜, 진제, 창도, 철웅, 초삼, 향국, 향운, 현성, 현호, 혜관, 혜운, 혜정, 호연, 홍원, 활안, 휴정
• 葬儀委員長 지유
• 葬儀副委員長 홍교, 성오, 성현, 선래, 여현, 몽산, 혜관, 덕민, 무비, 조연
• 葬儀委員
각명, 각우, 거해, 경륜, 경민, 경선, 계호, 관조, 광탄, 근일, 금종, 능산, 다정, 대원, 덕윤, 도각, 도공, 도문, 도영, 도완, 도원, 도후, 도후, 동성, 동옥, 동파, 마근, 만성, 몽산, 무설, 무아, 무애, 무이, 범산, 범종, 법동, 법등, 법문, 법보, 법성, 법성, 법성, 법안, 법장, 법의, 법조, 법찰, 법현, 법화, 보광, 보선, 본각, 상운, 선각, 선광, 선재, 선파, 설곡, 설송, 설파, 성관, 성덕, 성산, 성오, 성조, 성타, 세영, 세민, 송하, 수환, 수현, 양산, 여연, 영담, 영배, 영우, 영조, 영진, 완호, 우담, 운달, 원공, 원담, 원명, 원범, 원우, 원정, 원타, 원타, 원택, 원행, 월상, 월우, 유광, 유정, 의정, 인걸, 인묵, 일면, 일법, 일석, 자승, 장곡, 장산, 장운, 장적, 장주, 정각, 정견, 정견, 정광, 정념, 정락, 정만, 정야, 정우, 정인, 정휴, 종걸, 종고, 종림, 종삼, 종상, 종하, 주용, 중원, 지관, 지광, 지명, 지문, 지연, 지욱, 지운, 지원, 지원, 지종, 지현, 지형, 지홍, 지환, 지황, 진각, 진관, 진만, 진명, 진원, 진허, 청강, 청화, 탄우, 태공, 태봉, 평상, 학담, 해주, 향적, 현각, 현고, 현문, 현봉, 현엽, 현응, 현지, 현해, 혜산, 혜운, 혜원, 혜일, 혜정, 혜창, 혜총, 화범
문 백, 최경조, 박연차, 유대춘, 허종렬, 김영일, 송은복, 박용일, 정용상, 박태문, 안병준, 명재선, 백영현, 박연구, 정재운, 강복희, 김용환, 조영구, 신현웅, 김정수, 민병태, 강호용, 문기학, 배종태, 김정권, 이병목, 박인대
• 執行委員長 대성
• 執行副委員長 덕일
• 執行委員
지현, 청평, 보륜, 법찰, 법화, 청파, 법완, 일경, 도영, 송하, 탁일, 동파, 선파, 의정, 영파, 봉파, 월상, 청파, 신풍, 종파, 기홍, 능산, 경봉, 지허, 주일, 대현, 성화, 해보, 정광, 만법, 법장, 원각, 해공 김해사암연합회 대중, 가락불교청년회, 가락불교거사림회, 기사불자자비회, 김해교사불자회, 김해불교자원봉사단
• 都 監 석공, 정현, 각명
• 乘 法 지원, 진관, 진옥, 원정, 설곡, 선재, 진명
• 儀 典 한파, 원공
• 知 賓 지연, 정여, 상운, 정만, 원정, 정야, 지종, 범일, 홍산, 범어사 선원대중
• 侍 者 석산外 강원대중, 중앙승가대 학인, 동국대 석림회
• 財 務 성남
• 上 座
혜향, 지족, 혜원, 보타, 선공, 고담, 월주, 송강, 정안, 도관, 불공, 능혜, 철우, 대응, 광수, 혜산, 덕수, 법우, 공행, 도현, 월인
• 弟 子 홍산
• 孫 上 座
법용, 진수, 재한, 자현, 화봉, 보각, 석강, 돈오, 돈각, 보운, 심진, 수일, 지월, 보승, 돈수, 덕인, 선법, 월담, 지장, 지허, 지용, 일휴
• 曾孫上座 법봉, 정봉

梵魚門徒 東林寺 祖室 寒山堂 華嚴大禪師 門徒葬 葬儀委員會

人事말씀

梵魚門徒 東林寺 祖室 寒山堂 華嚴大禪師의 永訣式에 元老大德스님과 宗團의 큰스님 그리고 四部大衆을 모신 가운데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드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紙面으로 심심 감사의 人事를 드립니다.

寒山堂 華嚴大禪師 葬儀委員會
葬儀委員 執行委員 門徒一同 合掌

49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49재	장 소	일 시	연락처
초재	김해 동림사	11월16일 (음10월2일)	(055)337-0001
2재	서울 대흥사	11월23일 (10월9일)	(02)482-1122
3재	선산 문수암	11월30일 (10월16일)	(054)474-0615
4재	김해 장유암	12월7일 (10월23일)	(055)329-2799
5재	14교구 범어사	12월14일 (10월30일)	(051)508-3127
6재	거제 금수사	12월21일 (11월7일)	(055)635-4837
49재	김해 동림사	12월28일 (11월14일)	(055)337-0001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